

2025 빈땅캠프 <빈땅 리부트, 함께 쓰다> 정리

1. 빈땅캠프 개요

- 1.1. 일정 : 2025년 6월 6~8일.
- 1.2. 장소 : 진안 문화공간 담쟁이
- 1.3. 참가자 : 참가 19명, 동물 3 (레이, 솜, 하양)

웅기	살구	지음	양군	지각생	시금치	우마	멍구	비루	신산
민혁	도울	봄봄	룽타	반달	마시멜로	연두	소나무	염	

- 1.4. 프로그램 :
 - 1.4.1. 여는모임
 - 1.4.2. 담쟁이 소개 (반달)
 - 1.4.3. 나무 옷걸이 만들기 워크샵 (소나무)
 - 1.4.4. 빈땅총회
 - 1.4.5. 봉곡마을 안내와 산책 (이재철 마을만들기위원장)
 - 1.4.6. 물놀이 (칠연계곡)
 - 1.4.7. 불놀이 (무주 안성 두문마을)
 - 1.4.8. 책+사람 이야기
 - 1.4.9. 닫는모임

1.5. 준비팀

- 1.5.1. 진안 담쟁이 : 반달, 소나무
- 1.5.2. 준비팀 : 반달, 양군, 연두, 온, 어린, 마시멜로, 지음

1.6. 관련 문서

- 1.6.1.  2025 빈땅조합 총회 자료집
- 1.6.2.  2025 빈땅캠프 준비회의
- 1.6.3.  2025 빈땅캠프 준비
- 1.6.4.  2025 빈땅캠프 정리
- 1.6.5. 후기 :

2. 정산

2.1. 수입-지출 (정산중... 가안)

분류	구분	담당자	금액	비고	예산
지출	대관료	담쟁이	-160,000	16명, 2박	
지출	식비	지음	-259,000	고기, 맥주 등	

지출	식비	지음	-49,490	술, 안주 등	
지출	대여료	빈땅	-40,000	물놀이 평상 대여비	
지출	차량이용	지음	-10,000	캠프중 차량이용	
지출	차량이용	웅기	-10,000	캠프중 차량이용	
지출	차량이용	양군	-10,000	캠프중 차량이용	
지출					
지출					
수입	선물사용	지음	200,000	선물	
수입	회비	14 명	308,000	22,000	
수입	회비	1	11,000		
수입					
기타	6일 점심	지음	-49,000	6일 점심 빈빵	
기타	6일 점심 빈빵	지음	49,000	7명*70,000	
기타	8일 점심	지음	-220,000	8일 점심 빈빵	
기타	8일 점심 빈빵	지음	220,000	11명*20,000	
선물			200,000	선물금액추산	
선물	안주 선물 20만빈	익명의 조합원	200,000		
선물	목공 워크숍	소나무			
선물	위스키	우마			
선물	취주, 인삼주	키키			
선물	생선구이	비루			
선물	수박	우마			
선물	아이스크림	짱돌			

3. 빈땅총회

3.1. 총회 요약

- 총회 자료집 : [2025 빈땅조합 총회 자료집](#)
- 활동공유, 재정공유, 감사안 : 원안대로 승인
- 차기 임원 (연임)
 - 이사
 - 홍성빈땅 : 지음

- 홍성지역 : 장은경, 이동근,
 - 외부지역 : 온, 감로수, 지니, 어린
 - 감사 : 몽애
- 활동계획안
 - 서울 빈땅 확장 계획
 - 현재 빈땅조합 공유지 예비자금 **471**평. 다음 빈땅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 홍성빈땅은 당장 확장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지역에는 여유공간이 없지 않다.
 - 서울 사람들을 위한 보조공간 + 지역 사람들을 위한 숙박공간 + 에어비앤비?와 같은 용도로 작은 공간을 **2억** 정도를 사용해서 구해보면 어떨까?
 - 조합원들이 사용하는 공간과 에어비앤비를 같이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 관리하는 사람의 품을 고려한 재정계획이 필요하다.
 - 공동물품창고 같은 기능을 하는 공간이 있다면 공동체IT사협 등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 차기 캠프 계획
 - **2026년 6월 6일(토)~7일(일)**: 대체공휴일 여부에 따라 **2박3일** 가능여부
 - 장소 미정
 - 올해 여름 또는 가을 투어?
 - 일농 고향 포항 송라면 구옥에서 진행? 텐텐절? 여름?
 - 포항 빈땅? 진안 삼락리 빈땅?
- 총회 이후 캠프에서의 논의
 - 시금치의 인테리어사업과 포항집 고치기?
 - 진안 문화공간 담쟁이의 땅 1평 매입?
 - 담쟁이에서 돈을 모아 담쟁이 옆 밭(**800평, 10만원선?**)을 매입할 계획 있음.

빈땅조합에서도 일부 참가하는 안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함.

4. 사람+책

- 웅기
- 살구
 -
- 지음
 - <21세기를 살아가는 반자본주의자를 위한 안내서>
- 양군
- 지각생
- 시금치
- 우마
 - <산골에서 혁명을>

- <기분이 없는 기분>
- 명구
- 비루
- 신산
- 도울
- <오렌지주를 증류하는 사람들>
- <투게>
- 봄봄
- 반달
- 마시멜로
- 연두
- 소나무
- 염
- <대혼란의 세상, 희망을 찾아서>

5. 그밖의 이야기

- 봉곡마을 자료
 - 봉곡마을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 :  봉곡멧쟁이
- 다음번에는 천반산(정여립 유적지)에 가보자.

6. 빈땅캠프 평가/후기

- 웅기
- 살구
- 지음
- 양군
- 지각생
- 시금치
- 우마
 - `마을만들기 최우수마을 사례 투어 느낌.
 - 빈땅과 마을에 대한 고민. 오랜만에 친구들을 보니 좋았다.
- 명구
- 비루
- 신산
- 민혁
- 도울
- 봄봄
- 룡타
- 반달

- 마시멜로

- 연두

- 무사귀가 후 골아떨어졌었네요. 오늘 아침 출근해서 간신히 정신 챙긴 후 곱씹는 지난 2박 3일이 무척이나 달콤합니다.

처음 참가하는 빈땅캠프고 뭔가

정보의 부족+나혼자 한 오해ㅋㅋㅋㅋ로 빈땅캠프를 제대로 이해하고 가진 못했지만 강.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웃고 먹고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꼭 가야겠다 생각했어요. 무리한 일정 사이에서 고민도 많았지만 정말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반짝거리던 진안의 초록들, 어린이와 강아지와 웃음소리가 뛰어다니던 담쟁이 마당, 시원하고 편안했던 실내공간, 모두를 감동시킨 마을산책, 슬픔 끝 행복시작 물놀이, 제발 우리동네도 하나 생겼으면 싶었던 짬라인, 돈 주고도 못 볼 아름다운 낙화놀이, 밤마다 나눈 술잔들과 노래와 이야기들, 의외로(!) 깊이있던 책나눔 주제나눔, 어딘지 찜한 선물&소감 나누기와 뒷정리, 시간에 쫓겨 갔지만 너무 맛있었던 송어회, 남은자들의 끝나지 않던 다음 일정 논의 ("거기서 만나 그럼" 무한반복 ㅋㅋㅋㅋㅋㅋ)

지난 2박 3일의 여유와 웃음과 고마움 같은 게, 서로 감동하고 격려하고 웃어주며 보낸 시간이, 제가 사람들과 어울려 살며 나누고 싶었던 생활같다 생각했어요. 함께 산다는 게 늘 이렇게 웃기만 할 수는 없다는 걸 잘 알지만, 이런 시간을 두툼하게 깔아두고 그 위에 함께 할 일들과 고민들이 또 잘 쌓여가길.

즐거운 빈땅캠프였습니다! 🥰

또 만나요 다들!

- 소나무

- 염

살구도 말했는데 예전 평화캠프 하던 때가 떠올랐어요. 물론 지금은 노는 것이 많았지만요.

그리고 논밭과 숲과 어우러진 담쟁이 공간이 주는 편안함과 넉넉함이 예상하지 못했던

여유로움을 주었어요. 오랜 꿈의 하나였던 공간을 마치 실물로 본 것만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이런 공간이 있어줘서 무척 좋았습니다.

7. 다음 빈땅캠프를 위한 제안, 아이디어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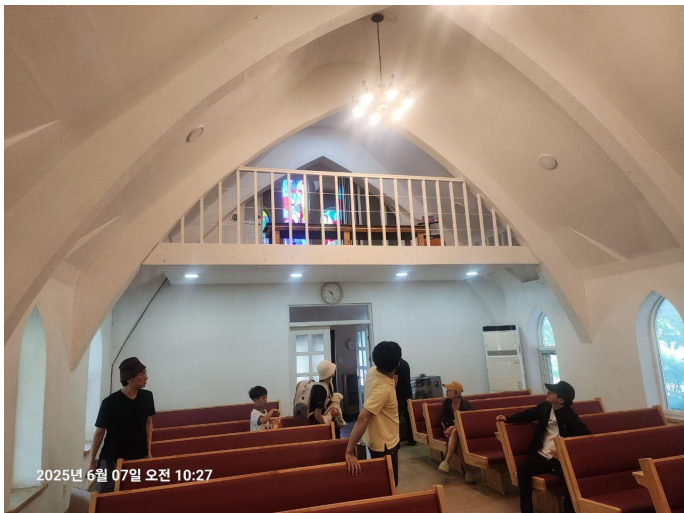
8. 사진

8.1. 단체사진











2025년 6월 07일 오전 10:33



2025년 6월 07일 오전 10:34



2025년 6월 07일 오전 10:44



2025년 6월 07일 오전 10:46

